

물의도시 · 숲세권으로 '다리로움 익산' 만든다

익산시는 올해 청년과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살맛나는 익산, 다리로움 익산 조성을 과감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산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시민체감형 사업과 숲세권 명품 주거단지, 힐링 수변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펼쳐 나간다.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점차 해소되면서 익산시가 자신 있게 내세운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은 지역의 확실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익산시의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은 다리로움 익산이다.

지역을 빛냈던 지난 한 해 익산시정 살펴보기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수호신 '익산다리로움' 탄생

익산시는 코로나19 속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내 최초로 전자지역화폐 다리로움을 출시했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8만 3,500명(전체대상 중 40%), 최종발행액은 1,800억원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다리로움 카드 시연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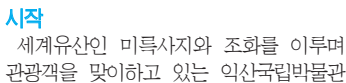
또한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과 경기진작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에 대응했다. 소득보전형으로 시민 모두에게 다리로움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경기부양형으로페이백제도를 함께 실시하면서 다리로움은 지역경제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립익산박물관 전경

고질적인 환경문제 해답을 찾다

익산시는 압 집단 발병지인 잠점마을을 제1호 환경시범마을로 선정해 각종 환경정화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시작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조화를 이루며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 국립익산박물관은 지난해 개관 이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60여만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근에 진행 중인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사업은 13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백제왕도역사관, 쌍릉 송림길 지중화 등 연계사업들이 올해 완성되면 백제역사 문화 관광벨트가 완성되며 관광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용안생태습지에 갈대숲 미로길과 정원을 조성해 한 해 동안 20만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심 속 수변 자원인 신흥공원에 국화동산, 수변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도 이끌어냈다.

이어 남산 폐석산 불법폐기물은 긴급 행정대집행으로 완벽차단했으며 광역매립장 조성을 정부에 제시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했다.

왕궁축산단지도 기존 80%에서 100% 전량 매입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인프라를 확충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명품관광도시' 도약

올해를 이끌어갈 시정 역점 시책

힐링 수변공간 조성, '물의 도시'로

신흥저수지를 품은 신흥공원과 관광객에게 공간인 금강, 프리미엄 주거공간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내용이 포함된 '물의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지역의 미래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시장실에 '일자리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정현을 시장이 직접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등 청년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시장 복합청년플, 구 하노바호텔 청년창업 지원공간 조성, 스타트업 파크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역사관광도시로 도약

우선 만경수변에는 물과 빛을 주제로 한 명품 주거단지 '위드프론트 힐링 수변도시'를 조성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만경강 문화관과 축구장, 파크골프장, 오토캠핑장, 자전거도로 등 휴식공간이 들어선다. 금강수변은 용안생태습지공원을 활용해 국가정원에 도전하며 옹포캠핑나루, 옹포캠핑장, 옹포관광지테마파크까지 조성해 금강수변을 전국 최고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관광분야에서 '한국관광의 별'에 이어 '법정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고도보존육성사업(총사업비 3,419억원),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총사업비 214억원), 서동생가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94억원) 등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역사관광도시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민간관광자원인 구룡마을 대나무 숲, 메타세콰이어 길에 있는 아가페정원, 고스라, 명품 도시숲 원대자연식물원 등을 활용해 시민참여형 관광모델을 선보일 예정으로 올해는 '500만 관광객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부터 100세까지, 익산시가 책임진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보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용안생태습지 전경

지난해 코로나19 속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다리로움' 출시 환경피해 치유센터 유치 성공 명품관광도시 도약 '출발선'



구룡마을 대나무숲

만경수변 힐링도시 조성 등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제공 익산역 중심으로 새만금 신항만 연계 광역환승체계 구축



익산역 전경

육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익산시는 명실상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보육은 시에서 책임진다는 목표로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만 7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마을돌봄공동체 운영 등 최고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살맛나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안전알림서비스 등 노인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아가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함으로써 어르신이 존경받는 효문화 장수도시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살고 싶은 농촌 귀농·귀촌 일인지역

익산시는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문제 극복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우선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촌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익산형 연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춤형 농가 소득 수단이 마을전자상거래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공공배달시스템까지 개발해 연계할 방침이다.

강력한 교통인프라로 세계의 물류관문

익산시는 지역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연금을 비롯한 각종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인구 문제 극복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다다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은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을 연계해 동북아물류거점을 완성하는 스마트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인 국제화물철도역 구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를 정부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연무IC·일반산산업단지 진입도로(1,869억원)는 올해 말 개통되며 국도27호선 서수~평장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3,327억원)은 오는 3월 공사가 시작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체적 인프라를 갖춘 교통 요충지로 발전시켜 여타지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교통물류분야 절대강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은 "올해는 시정 최상위 가치로 인구 4대 핵심 정책인 주택, 일자리, 환경·문화, 출산·양육에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해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 땀땀 뚫쳐 '살맛나는 익산, 다리로움 익산'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인터뷰 - 정현을 시장



“젊어지는 익산 희망 익산 조성”

“시민 행복 지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민체감형 사업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올해를 '희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정 시장은 "올해 익산시정은 주택과 일자리, 환경·문화, 출산·양육이 담긴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젊어지는 도시, '희망 익산'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시장은 익산시민들이 가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물이 없는 도시'라는 단점을 과감히 극복할 대책도 내놴다.

그는 "호남의 젓줄인 만경강과 대한민국 4대강 중 하나인 금강, 도심 내부의 친수자원인 신흥공원을 활용하는 '물의 도시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수변공간은 물과 빛이 있는 명품주거단지가 되어 전주와 군산, 김제를 아우르는 젊은 도시를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과 입주기업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지원대책도 강화한다.

정 시장은 "지역회화 '익산 다리로움'의 목표 발행액을 2천억원으로 높이고 시장실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어 기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며 "경제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 지원 등 집토끼 살리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시민과 함께 땀땀 뚫쳐 '살맛나는 익산, 다리로움 익산'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명품 주거공간과 수변도시, 청년과 돌봄정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 익산'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